

EU 화학정책 “광물자원도 규제”

산자부, 무역규제 가능성 우려 … APEC 광물교역 협력 논의

광업 분야에서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국가들의 교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협력이 크게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6월15일부터 3일간 칠레 안토파가스타에서 열린 <제1차 APEC 광업장관회의>에 참석해 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교역 자유화를 위해 17개국 대표와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은 효율적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적 노력, 폐광산 복원, 소규모 광산지원을 위한 기술 지원제도 도입 등에 동의했으며 장기적인 광물자원의 수급균형을 위한 투자 장려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유럽연합(EU)이 새로운 화학제품 정책에 의거해 광물자원에 대한 무역규제를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 회원국의 우려를 EU 측에 전달키로 했으며, 회의 결과는 11월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한국대표로 참석한 배성기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이 환경친화적 자원개발에 필요한 관련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국가간 기술교류 추진과 광물·금속자원의 생산·소비·교역에 대한 공동대처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6/18>